육체 의존형 인간, 그 진화의 끝

(레18:1~3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3.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6.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육체 의존형 인간 그 진화의 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육체 의존형 인간 그 진화의 끝'
오늘 본문에 육체 의존형 인간의 행위가 진화를 하는데 맥시멈으로 진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거주하던 이집트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나라에도 '풍속'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새롭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노래방인데 좋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노래방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TV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는데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모습이 현실과 가깝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악을 쓰고 노래를 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들 노래 부를 것을 찾느라고 분주하고 또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하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싼 술집에서 여자들이 옆에서 술 따르고 하는 것도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남자들 옷매무새가 완전히 해체된 상태에서 넥타이를 이마에 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놀아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해보신 분들이 대답을 한 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소위 젊은이들의 클럽에서 요란한 음악에 맞추어서 옷을 입었다고 하기 보다는 입다가 만 것 같은 중요한 부분만 대충 가린 상태에서 꼭 몽유병자 같은 표정으로 춤을 추는 모습, 또 새벽에는 클럽 도처에서 아가씨들이 술에 취해 주저앉아 토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폭탄주나 독한 술들을 먹고 감당이 되지 않으니 앉아서 그 짓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즐거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벌 같아요. 폭탄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마시는데 형벌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형벌 같은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이게 행위가 진화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주 한잔도 못 마시던 사람들이 폭탄주까지 만들어 먹으면서 밤을 새우는 일들이 행위가 진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지촌 아가씨들이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집에서 나올 때 18-19세 소녀시절 때부터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생계를 돕겠다고 갸륵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점점 사회의 나쁜 손들이 닿으면서 조금씩 그런 길로 빠져들어 진화해 가는데 우리 모두가 다 육체 의존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육체 의존형으로 산다는 것은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대상으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 의존형 인간이라고 해도 좋아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대상들로부터 만족하고 행복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악한 방향으로 진화해 가는 것으로, 그 진화의 끝이 바로 폭탄주 마시고 십대 후반 이십대 초반의 아가씨들이 온 몸을 거의 다 내놓고 새벽에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토하고 있어요. 이게 끝 간 데 까지 간 것 아닙니까? 젊었을 때 잠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젊었을 때 그렇게 끝 간 데까지 간 것이지요.
그리고 변태성욕, 변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성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근친상간, 동성애 이러한 변태적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변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기뻐야 끝이 납니다. 끝이 난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더 이상 무엇이 요구되지 않는 충족된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의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자녀를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크기와 자녀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기와 자녀의 크기를 우주의 크기와 비교해보면 상징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겠지요. 그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만족할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통해 만족하려고 하니 자녀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거는데 마치 소형자동차 엔진에 25톤 트럭의 몸체를 거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지요. 돈, 돈이 뭔데 도대체 하나님 크기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이라는 것에서 그 크기를 채우려고 하니 돈에 대해서 과도해지니 변대행위가 나타납니다. 부정부패가 나타나고 하루 온종일 돈, 돈하고 삽니다. 하루 온종일 돈, 돈 하는 게 변태예요. 자녀를 달달볶습니다. 애들이 12시가 넘도록 학원에 있다는 것이 이게 지금 강남의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게 풍속이라는 것이고 이 풍속이 바로 변태적 풍속이라는 것이지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백만 원, 이백만 원짜리 영어 과외를 시키는

데 이 풍속도가 변태가 아니고 뭡니까? 육체 의존형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크기만큼 큰 것이 없는데 그것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과도한 기대가 주어지게 되고 그 과도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 자꾸 이상한 변태 행위로 발전해 나가고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육체 의존형 인간의 반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므로 하늘바라기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늘에 계셔도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내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하늘 의존형 사람이 육체 의존형 사람의 반대가 됩니다. 이 사람들도 육체 의존형 사람과 마찬가지로 육체로 움직이면서 사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육체 의존형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행복을 육체를 통해 표현하며 사는 것이지 육체로 만나는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의 기쁨 불감증의 사람들이고, 세상으로부터의 만족 불감증의 사람들입니다. 단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으로 사람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그 기쁨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로 사업에서 탈세와 같은 변태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새벽부터 밤새워가면서 몸까지 버려가면서 하는 그런 변태행위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업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있었던 애굽의 풍속도를 그려 보이시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를 그려 보이십니다. 그 풍속도가 바로 근친상간, 변태성욕, 동성애,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 종교적 예식에서의 광란의 몸짓으로 행하는 행음행위 등이 그들의 풍속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풍속이 지배하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풍속이 지배하는 땅으로부터 나왔고 이러한 풍속이 지배하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선민은 이런 풍속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근친상간의 경우를 보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성적으로 범하는 근친상간의 얘기까지 나오고 고모를 범하고 이모를 범하고 계모를 범하고 어머니를 범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길은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마치 부산이 경부선의 끝이라고 하면 경부선에 들어서서 천안에 있을 수 있고 대전에 있을 수 있고 대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끝나는 것이고 진화의 끝까지를 이루지 못할 뿐이지 그 진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의존형 인간으로 살면서 육체를 통

해 만나는 이 세상의 대상들로부터 기쁨을 얻겠다고 살면. 심지어 짐승과의 교접(수간)까지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근친강간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속과 비교해도 글쎄요. 얼마나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여중고생들의 낙태와 미혼모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혼전 성관계 따위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생전 모르는 사람과 하룻밤 동침하는 정도는 세련되고 잘 노는 젊은이들의 상식입니다.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TV에 고정프로그램에 항상 출연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 어린이 기관의 원장님들의 성범죄, 원조교제, 섹스관광, 우리나라 사회의 인텔리 계층의 의사들이 해외세미나 가서 반드시 도는 향락코스, 부부들이 서로 상대를 바꾸어서 잠자리를 갖는 스와프라고 하는 천하의 패륜적 행동들, 광적인 명품집착, 고등학생들 밤 12시 넘도록 하는 수업으로 초등, 중등, 고등 12년 과정을 오직 대학입시를 위해 지옥을 사는 현상, 조기 유학하느라 부부가 생이별하는 것, 다 다른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는 풍속도가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돈 바라기, 교회까지도 들어왔잖아요. 대형 예배당과 수적 부흥에 대한 병적인 집착 등이 다 변태입니다.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였던 이유는 제사 때문이었는데 십자가로 제사가 완성되었고 개인별 제사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므로 수적인 부흥에 집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본집약적 대규모 예배당이라는 것은 이건 변태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그런 건물이 필요없어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산다고 하는 선민의 핵심적 요청을 이루어 가는 교회라면 모임도 5-10명 모여서 서로가 내 안의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백 명, 이백 명, 삼백 명 모일 필요가 없어요. 서울에 살면 서울 자체가 흩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변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열해 주실 때 그 어법을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하지만 성경말씀이니 한 번 해봅니다.
7절에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네 어머니인즉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같은 말 같은데 ‘어머니’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8절에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하고 하시는데 ‘네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가족관계의 신분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근친상간을 금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 어머니, 누이, 딸, 손녀, 이모, 고모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분의식 자체가 마음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만 남았느냐? 쉽게 말하면 고모를 볼 때도 암컷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모를 볼 때도 암컷으로 보고 나는 수컷이 돼

있는 겁니다. 남성인 사람이 아니라 수컷으로 변했습니다. 가족관계가 주는 신분의식 자체가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고모, 이모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성적 대상으로서의 암컷으로만 본다는 것인데, 이유는 마음의 지성소 안에 육체의 성이라는 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성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프로이드처럼. 사람들은 프로이드를 대단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변태입니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너지를 성 에너지의 표출로 보는 사람으로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지식인처럼 숭앙을 받고 있습니다. 성을 마음에 들여놓으면 고모가 고모로 보이지 않고 이모가 이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수컷이 되는 바람에 암컷으로 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 의존형 인간들이 성만 마음에 집어넣습니까? 돈도 집어넣으니 고위공무원들이 부정부패와 탈세 등이 이 사회에 만연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 들어보니 박 근혜 정부는 박 근혜 대통령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친족이 없으므로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정부의 부패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규정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 계속 이것을 …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 규정 갖고는 절대로 하지 않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세상 것들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 들여놓으면 그 상태에서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고 아무리 규정을 얘기해도 아무도 바뀌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풍속을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 연합장로교회는 동성애자 여자를 목사로 인정했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했거든요. 제가 한인교회를 섬길 때 예배당 건물을 그 교회와 같이 사용하므로 그 교회 목사님과 만났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여자 분이었는데 이 분이 자기 남편을 제 아내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동성애자입니다. 공공연하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목사예요. 교회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끌어들여 놓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겠다고 행위를 진화시켜 가면서 심지어는 동성애까지도 교회가 받아들여서 하나님말씀을 전하는 강대상 위에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이 진화가 안 이루어질까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가 TV에 나와서 사회를 보면서 다 담당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진화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육체 의존형 인간의 행위가 진화해서 끝점을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선민들을 집어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회 속에서 선민이 사는 것은 선민다움이 나타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풍속이 있으므로 선민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속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주일 날 집에서 교회에 가는데 20분 정도 해변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아침 9시 예배를 가기 때문에 8시 20분 쯤 가다 보면 젊은 남녀들이 바닷가를 거니는 모

습을 많이 봅니다. 어젯밤에 여기서 다 잔 거예요. 그런데 참 제 눈도 이상해요. 분명히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인데 아침부터 나왔다는 것은 어젯밤을 같이 지낸 것 아닙니까? 풍속의 힘이 무서운 것이 처음에는 '엄마 아버지가 아실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입니다. 하도 많이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하룻밤을 자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풍속이 돼버려서 제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머리로는 혼전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이미 풍속에 동화되어서 이상하게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말라고 말은 하는데 마음에 저항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짜로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혼전순결을 유지하라는 말을 해도 소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풍속에 의해서 설득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그래야 한다고 받아들여도 마음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규정들은 필요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낼 수 있다는 것인데 뭘 진단해 냅니까? '아,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까지 진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소주 한 잔 겨우 먹던 사람이 폭탄주를 500cc 석 잔씩을 마시는 진화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성을 들여놓으면 심지어 고모나 이모까지도 성적대상으로 바라볼 정도로 진화해 가는데 그것을 알아채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규정들을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통해서 제거해야 하는데 제사가 짐승을 죽여 봐야 날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 봅시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내가 동성애자를 만났다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서 끊지 못해요. 행위로 호소한다고 행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단지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 이외의 세상 것을 들려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고 아무리 하지 말라고 호소를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에게도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뭣 모르고 풍속을 따라가는 동성애자 중에 선민이 있을 것이에요. 변태성욕자 중에 심지어 고모를 범한 자들 중에서도 선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모를 범하는 있을 수도 없는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도, 그렇게 까지는 진화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같으냐?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같다는 것이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화의 끝점에 와 있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통속이고 오십 보 백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민이 있어요. 그러므로 행위를 나무라기 전에 먼저 마음속 지성소에 들어있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오는 것이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있는

마음과 인격이 죽어야 함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선민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우습게 여기고 튕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 나갑니까? 내가 무슨 수련과 연마를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백 번 읽어서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이러한 행동들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선언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격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인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을 들여놓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패륜적 인격이 되느냐 거룩한 인격이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인격을 연마하고 수련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아주 관능적입니다. 계속 보면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얼른 마음속에 그 관능적 이미지의 여자를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커트해 버리는 것입니다. 돈 걱정이 생겨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워요. 이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계속 보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서 돈, 돈 하고 변태적 돈을 추구하는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커트해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 들어와서 걱정이 되고 추구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려는 찰나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아서 마음 안에 그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이거 하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데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로 또 다른 방향으로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도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도 있고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도 있는 사람들로 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화의 끝점에서 이루어진 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아닙니까?
그런다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직장생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자녀 낳지 않고 기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요.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이 육체를 입고 살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기쁨을 표현하는 과정이지요.
육체 의존형 인간처럼 그것들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추구해 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추구하려다 보면 진화가 이루어지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진화의 끝점을 향해 가게 되는데, 꼭 성적인 관계에서 근친상간이나 동성애 같은 끝점이 아니더라도 삶의 모든 방면에서 진화의 끝점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는 것 중에 특히 강남에서 교육을 한다는 명분아래 행하는 행위들은 결국은 변태의 끝점까지 진화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술 먹는 문화 변태의 끝점까지 진화를 한 것입니다. 외국보다 우리의 성문화가 더 문란하면 문란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아무리 고치라고해도 소용이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그 아이들은 지금 몰라요. 자기의 마

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들어와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데 나무라면 뭐합니까? 문제는 내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풍속에 묶여 사는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이 이어지는 맥락과 촉매작용, 접촉점이 있어야지 무턱대고 십자가만 전하면 되느냐고 하는데 무턱대고 십자가를 전하세요. 접촉점을 찾느라고 교회가 세속의 풍속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접촉점은 선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접촉점입니다. 단절된 것 같은 십자가 얘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너 죽었어. 그거 믿니?'라고 던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나 변태성욕자에게도 근친상간을 범한 자에게도 십자가를 전하고 풍속의 제물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선민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말고 뭘 붙잡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매순간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게 걱정을 발동시키고 생각을 발동시키고 소원을 발동시키고 계획으로 자극할 때 '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함으로써 풍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늘의 기쁨이 땅으로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의 풍속을 이기고 세상의 풍속에 빠진 자들 중에서 선민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